



여대생 복지 개선, 주체적 권리·적극적 문제의식 병행되어야...

노 은 영 | 한남대 대학신문 편집국장

대학생. 입시지옥에 시달리던 시절부터 늘 선망의 대상이 되어온 이 이름은 캠퍼스의 낭만이 가득한 곳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마다를 빗대어 불리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때문에 비단 미래를 꿈꾸는 입시생들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의 구성원들은 지극히 다분한 선망의 기대치를, 대학생이란 이름으로 묶여진 우리들 저마다에게 품어낸다.

선망의 기대치를 허울이나 허상이 아닌 현실로 반영시켜 가기 위해서 대학인들 저마다는 자유라는 방대한 시간의 여유를 자유 그이상의 가치, 즉 평등을 기반에 둔 권리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용기를 접목시켜 가야 한다. 작금의 현실에서 저해받지 않는 권리를 위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요구하기 위한 대학인들의 용기는 '학내 복지'에서 단연 그 빛을 발해야 하는 시점이다.

비교적 자유롭고 평등한 공간인 대학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은 무수히 산재해 있다. 그러한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는 각 대학의 총학생회에게 부여돼 있는 반면, 과거와 달리 사회의 평등한 구성으로 거듭나야 할 여학생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독자적인 대표체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부재하다.

이러한 사실은 여학생들 저마다가 진정한 사회 주체로 설 수 있기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허점을 드러내 주고 있는 부분이다. 남학생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여학생들만의 특수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취업, 복지 문제 등 여학생을 옹아매는 원인들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는 우리의 행동에서 나를 가두는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가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준비 단계이다.

전국적으로 총여학생회가 존립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소외된 시선에서 중심의 시선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학내 여학생 저마다가 선결해 나가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현실이다. 총여학생회가 부재한 우리 대학의 경우도 여학생의 복지수준이 미비한 수준이다. 여학생을 위한 전용 휴게실이 마련돼 있지만 대부분의 여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하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화장실의 경우도 시설이나 관리면에서 잦은 불만의 대상으로 떠오르곤 한다. 화장실 문의 틈이 벌어져 있거나, 문고리가 부재하거나, 생리대 자판기나 화장지 강제매, 제 장소에 구비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피부로 실감하여 느끼는 불만의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선결해 나갈 수 있는 총여학생회의 설

립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나 그 주체가 세워져 가는 과정의 소극성, 존립시 운영상의 미흡 문제 등이 제기되며 쉽게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17대째 총여학생회를 운영하고 있는 동국대의 경우, 자체적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학 자료실, 안티 성폭력, 자유게시판 등에서 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도 사무국, 총무국, 매체국, 학술국, 일상 정치국 등의 분업사업이 활발한 총여학생회가 주축이 된 가운데 여학생의 복지 문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특히 일상 정치국에서는 매주 화장실 신문 발간, 여학생 휴게실을 관리·점검하는 일 등의 구체적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지주여성총여학생회를 열어가고 있는 경산대의 경우는 이동총여학생회를 설치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학생들의 불만과 요구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구상에 노력 중이다. 이밖에 총여학생회를 통해 여학생들을 위한 여성 문화제나 영화제 개최, 피임교육·캠페인 등을 통한 여성성의 의식 전환을 위한 문화사업 등도 다양하게 정착되어가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차이를 떠나 대학인들 모두는 평등하게 사회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 남성 중심의 고등교육은 이제 구시대적 발상에 그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지난 해 한양대는 전체 학생의 29%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던 여학생의 비율이 지난 수시모집에서 46%로 급증한 사례와 꾸준히 늘고 있는 이·공계열의 여학생들의 비율을 감안하여 이미 지난 '94년부터 안산과 서울 캠퍼스에 여학생실을 설치했다. 현재 한양대는 여학생실을 취업준비와 정보제공, 문화행사 개최, 여학생 전용 휴게실 마련 등을 위한 복지향상에 계속적으로 힘쓰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가고 있다.

현재 총여학생회가 자치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여학생들의 복지 문제가 그나마 학내

사업의 주요 문제로 조금씩 부각돼 가고 있는 반면 총여학생회의 부재로 인한 대부분의 대학 안에서 여학생 복지 문제는 단과대나 학과별 사업 안에서 미비한 수준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수준이다. 개인마다의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하나로 응집해 나갈 수 있는 목소리는 학생회라는 자치기구를 통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여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것들,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독립적인 조직체인 총여학생회의 설립 논의를 강 건너 불보듯 간과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대학 안에서 분명하게 인지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남녀의 불평등을 넘어선 정당한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몫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넘어선 모든 대학생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대학 안에서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학교와 학생, 교수와 학생,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는 이들을 둘러싼 문제의식이 도출되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형성되곤 한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문제의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당당한 교육환경과 복지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중 여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는 복지개선의 권리는 대학인들 저마다가 스스로 인지하고 요구해 나가야 한다.

캠퍼스라는 이름만으로도 낭만과 자유의 내음이 물씬 풍겨져 나오는 것이 대학이다. 당당한 사회의 여성상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 병행되는 곳 또한 대학이다. 그 안에서 쉽지는 문제의식을 갖고 복지를 위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려 할 때 여학생 저마다의 진정한 대학의 주인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다. **한양대**